

[2019년 4월 27일 시행 경찰 1차 기출 총평]

18년 2차 이후 문제의 형식에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국정교과서나 다시찾는 우리역사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 주로 단어를 바꾸는 형식으로 문제를 출제하였다면, 18년 2차부터는 과거 기출지문이나 응용지문을 많이 출제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을 익숙하게 하는 게 유리했다면, 지금은 지문 이해력과 문제 응용력을 높이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시대나 주제간 비교를 잘하면 지문 이해력이 높아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문제 응용력이 높아진다. 어느 시대이나, 혹은 어느 주제에나 적용할 수 있는 일반론을 익히는 것도 문제 응용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9년 1차는 18년 3차에 비해 체감난이도는 다소 상승한 듯하나, 실제 점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시대별로 보면(19문제 중), 고대사가 6문제, 고려시대 3문제, 조선시대 5문제, 근현대 5문제(개항기1, 일제2, 현대2)가 출제되었다.
- 주제별로 보면(선사, 초기국가 제외), 역사학개론 1문제, 정치사 9문제, 사회사 1문제, 문화사 2문제가 출제되었다.
- 출제 형식으로 보면, 박스형이 12문제 출제되었다(순서형 2문제, 사료 7문제, 제시문 2문제, 선택형 1문제). 사료는 대부분 기출 사료가 그대로 출제되었다.
- 난도로 살펴보면, 1번, 6번 등이 고득점을 가르는 변수가 되었을 것이고, 이외의 학생들에게는 3번, 7번, 11번 등도 점수를 가르는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고대사에 난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고려, 조선이 제일 쉽게 출제되었다. 근현대 역시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다.

이번시험은 경찰 시험 처음으로 역사학개론 문제가 출제된 것이 특징이다. “역사는 사실 그대로의 것” (실증주의 견해)이라는 견해와 “역사는 과거의 사실 외에 역사가의 주관에 가미된 것” (E.H.Carr가 대표적)이라는 견해를 구분하는 것을 묻는 문제인데, 처음 출제된 것이라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8년 3차에 이어 가야 단독문제가 다시 출제된 것이 특징인데, 가야 시대 비교가 잘 되어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풀었을 것으로 본다.

문제가 응용되어 출제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범위는 《연표실록》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9)	(1)	(2)
	· : ,		
(6)	· : · 가 :		
	· 순서 · 가	· 사료	· 사료
(3)	· · 사료		·
(5)	· 사료 · · (2) : , 사료 · 사료		
(1)	· 1880		
(2)	· 3.1 ·		
(2)	· 4 () 사료 ·		